

물이 흐르는 모습을 들여다 보면서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말없이 보여 주기 때문일까?

그러나 그 사실은 너무 단순하다. 오히려 물의 내면에는 깨끗한 곳에 있으려고 다른 물건과 다투지 않는 겸손함,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큰 가르침을 숨기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물의 품성이야말로 ‘물 흐르듯 사는’ 삶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그 제자들을 개인교습시켜 주었거나 학원을 차려 교육시킨 적은 없다. 다만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자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그로부터 뭔가 확실한 것을 알고자 함께 노력한 사람들을 일컬어 모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중 꽤 알려진 제자가 둘 있었으니, 한 사람은 쾌락론자로 알려져 있는 아리스티포스(Aristippos, B.C. 435-356)이고, 다른 한 사람은 견유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안티스테네스(Antisthenes, B.C. 445-365)이다.

아리스티포스는 ‘한량’ 처럼 거침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다. 그는 요정에 드나들기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기생과 동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비난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비슷한 논법을 전개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집에 사는 것과 아무도 산 적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무 차이가 없죠.” “지금까지 수만 명이 탔던 배로 항해하는 것과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배로 항해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무 차이가 없죠.” “지금까지 많은 남자들과 어울렸던 여자와 함께 사는 것과 누구와도 어울려 본일이 없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

물과 순리(順理)

깨우쳐 준다.

만일 순리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대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과거에 개와 똑같은 삶의 방식을 택했다 하여 견유학파(犬儒學派, Kynikos)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자.

그 학파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였다. 물론 소크라테스의 가장 훌륭한 제자는 플라톤(Platon)이고, 또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게는 플라톤이라는 걸출한 제자이외에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운 형

(경기대 교수, 철학)

이러한 삶은 그의 성격이 원할 하고 융통성이 있었다는데에도 기인하고 있겠으나, 그가 추구했던 철학적 목표인 ‘쾌락’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그가 생각하는 쾌락이란 ‘아무 것에도 구애됨이 없는 자유’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특히 ‘뽀내는 사람들’에겐 가시같은 존재였다.

한번은 한강을 다섯번은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수영을 잘한다고 뽀내는 사나이에겐 “물고기가 잘하는 짓을 가지고 으시대다니, 너는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꾸짖었다.

또 어느날은 왕의 대신인 시모스가 대리석이 깔린 자신의 저택으로 아리스티포스를 초대하여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태리 가구, 외제 세탁기 등을 자랑하자, 그는 갑자기 대신의 얼굴에 가래침을 탁하고 뱉었다. 당연히 대신은 마구 화를 낼 수 밖에. 그러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 미안하오. 이 집안에선 달리 적당한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소.”

그는 어느 곳, 어느 때이든 쾌락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자유분방한 사나이였던 것이다.

아리스티포스 처럼 외부세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면의 자유를 추구한 또 다른 사람은 안티스테네스이다. 그 역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던 것은 아리스티포스에 못지 않았다. 그를 ‘키니코스’(희랍어로 ‘개와

같은’이라는 뜻) 학파라고 부른 까닭도 내면의 덕을 중시하고, 관습 등을 경시하는 것은 물론, 항상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사람들을 향해 언제나 물어뜯을듯이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는 쾌락을 중요하였다. 도리어 재난의 공포로부터, 외적인 사물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타인들이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이냐에 따라 좌우되는 태도로부터 벗어나 오직 선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그 때문인지 그에겐 제자가 극히 적었는데, 그런 중에도 ‘나무통 속의 철학자’로 유명한 디오게네스(Diogenes, B.C. 412-325)가 그의 제자였다.

디오게네스의 아버지는 시노페라는 도시에서 위조지폐를 만들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죽었고, 디오게네스는 그 일로 무일푼으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고향에서 쫓겨난 디오게네스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참을 방황하다가, 아테네에 있는 안티스테네스를 찾아 제자로 입문하였다.

스승의 가르침은 디오게네스에겐 더할나위 없이 쉬운 것이었다. “사람이 행복해 지려면 돈은 물론, 명예, 지위, 가문도 소용없고, 오직 착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가르침은 디오게네스의 처지에는 그만이었다. 그래서 “나는 추방을 당한 덕분엔 철학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말할 정

도였다.

그는 어느날 쥐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크게 깨우치게 된다. 쥐는 특별히 리브 호텔이나 물침대를 찾지도 않고,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지도 않는다. 디오게네스는 “그것은 마땅히 인간의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욕심없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옷은 단 한 벌로, 보통 길이의 2배로 만들어 밤에는 그것을 둘둘 말고 잤다. 그의 재산목록 1호는 물그릇이었지만, 아이들이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내가 어린아이를 만큼도 못했구나”라면서 물그릇 조차 던져 버렸다.

피로하면 아무데서나 누워 잤다. 어느 사이에 그는 이름 대신 ‘개’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런 그에게 굴러다니는 나무 술통은 마치 호텔을 얻은 셈이었다. 뜨거운 여름의 태양도 피하고, 겨울의 모진 바람을 피하기엔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그는 때때로 대낮에 등불을 켜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곤 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나고 묻자 그는 “잃어 버린 것을 찾고 있으”라면서 등불을 상대방의 얼굴에 비추곤 했다. “무엇을 잃어 버리셨는데요?”라면서 한 젊은이가 도와줄 셈으로 친절히 묻자, “사람을 찾고 있으. 사람다운 사람을.”라면서 가던 길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었다. 그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막상 그 목욕탕에는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도 없이 서서 물을 찍어바를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하였다. 디오게네스의 눈에는 목욕탕 안에 동물들이 있을 따름이었던 것이다.

플라톤이 “인간이란 두 다리가 있고 털이 없는 존재로서 그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다”고 정의하여 많은 칭찬을 듣고 있을 때, 디오게네스는 털을 다 뜯어낸 닭을 쳐들고 플라톤에게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 놈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다.”라면서 그 닭을 플라톤의 발 앞에 내동댕이 쳤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처럼 천방지축으로 보이는 그에게 사람들이 “너는 어디 시민인가?”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세계의 시민(코스모폴리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겐 인간들이 만든 좁은 국가의 경계

선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착한 마음씨를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배를 타고 유람을 하다가 해적들에게 체포되어 노예시장에서 ‘매물’로 팔림으로써 죽는 날까지 노예로 살게 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과의 대화도 그가 노예로 팔리고 나서의 일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이스를 정벌하고 그리이스의 정치가나 학자들로부터 알현을 받고 있었다. 그는 디오게네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터라 디오게네스도 자신을 알현할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양지에 느긋하게 드러누워 일광욕을 즐길 뿐 경의를 표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왕은 이 완고한 사나이에게 흥미를 느꼈는지 스스로 디오게네스를 찾았다.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대왕은 선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망이 있다면 말해 보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한 손을 쳐들어 대왕을 밀치듯이 “햇볕을 가리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대왕은 이 말에서 한 노예의 위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옆의 무관들은 디오게네스의 오만함에 몹시 화가 나서 런치를 가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대왕은 그들을 막으면서 “내가 만일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는 걸 원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욕심하나 없이 떠돌이 처럼 사는 그들의 모습은 물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폐수를 자신의 몸에 쏟아 부어도 묵묵히 흐르는 물은 사람들에게 앙탈을 부리지 않는다. 자신이 한 일은 자신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나무라지 않는다. 다만 물은 스스로 깨끗함과 더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말할 뿐이다. ☞